

# 중기부 장관·차관, 창업·지역산업 현장서 ‘정책 해법’ 찾는다

청년·조선·인쇄업 애로 청취  
장관, 창경센터 대표들과 간담회  
중앙대 찾아 청년창업 소통 이어가

노 1차관, 해양모빌리티 포럼 참석  
“조선업 경쟁력 강화 적극 뒷받침”

이 2차관, 파주 인쇄소공인 간담회  
업계 애로 듣고 지원 방안 논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전엔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19개 창경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모두의 창업’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노용석 제1차관은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경기 파주에 있는 파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인쇄업계 소공인들과 대화 자리를 가졌다.

한 장관은 창경센터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창경센터는 정부의 창업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성구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거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창경센터가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경센터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거점기관으로, 지역 창업열풍 확산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창경센터 대표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운영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지역 창업 허브이자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창경센터는 중기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지역 핵심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다양한 창업자원을 연결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향후 전국 100여 곳의 운영기관에서 접수된 창업 아이디어를 면밀히 심사해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상담·멘토링(보육)·창업활동자금·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션발자게도 제도권 상담 및 멘토링(보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마감은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다.

한 장관은 충남대(4월13일), 경상대(4월17일), 호서대(4월22일), 고려대(4월30일), 대구대(5월6일), 전남대(5월8일)에 이어 이날 7번째로 중앙대에서

대학생들과 창업을 주제로 소통했다.

한 장관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은 중기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향에 맞춰 조선 분야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노용석 차관 외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 관련 중소기업 대표와 전문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의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했다.

노 차관은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력 생태계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도 스마트공장,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지역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친환경·스마트 조선 전환 대응,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자재 국산화, 숙련인력 유지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소공연

### 소상공인 中 진출 지원

상하이서 시장개척단 펼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중국 시장 진출 모색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6~9일 중국 상하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중국시장개척단’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중연합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 소공연은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업종단체 단체장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상하이 일원에서 투자상담회 참석, 현지 한국관 탐방, 대규모 박람회 참관,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상하이 청포구 중국국제 수입박람회 지휘부에서 상하이의 행정구역인 서경진의 소호평 당위부서기, 오정봉 부진장 등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상하이 서경의 투자유치 방안 PT와 함께 상하이 현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상하이시의 지원방안이 소개됐다.

/김승호 기자

## 효성벤처스, 딥테크 투자로 미래 먹거리 확보 속도

바이오·뷰티·공간컴퓨팅 분야 확대  
AAC홀딩스·아임뉴런에 투자 집행  
산업용 공간컴퓨팅 딥파인도 포함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바이오·뷰티·공간 컴퓨팅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잇따라 단행하며 딥테크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재무적 투자를 넘어 AI 기반 신약 개발부터 산업용 디지털 전환 기술까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효성벤처스는 지난 12일 뷰티 솔루션 기업 ‘AAC홀딩스’와 AI 기반 신약 플랫폼 기업 ‘아임뉴런’에 대한 투자를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 공간 컴퓨팅 기업 ‘딥파인’에도 투자를 집행했다.

아임뉴런은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물질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아임뉴런의 약물 전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약물의 뇌혈관 장벽(BBB) 통과율을 높일 수 있어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지난 2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기

술력을 입증했다.

AAC홀딩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디컬·뷰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피부 상태는 물론 생활 습관 등을 반영해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단순 시술이 아닌 종합적인 관리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딥파인은 산업 현장을 3D 디지털 데이터로 구현하는 공간 컴퓨팅 기업이다. 일반 모바일 기기로 실내 공간을 정밀한 3D 지도로 구현할 수 있으며, 드론·스마트글래스 등과 연동해 작업 효

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기존 기업 시스템과도 쉽게 연계할 수 있어 향후 효성그룹 제조 현장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효성벤처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바이오, 뷰티, 공간 컴퓨팅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술 중심 투자 기조에 발맞춰 국내 딥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처현정 기자 hyeon@



현대자동차·기아 양계 사옥. /양성운 기자

## 현대차·기아

### OIN 2.0 가입, 특허망 확대

OSS 분쟁리스크 선제 대응

현대자동차·기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관련 특허 분쟁에 선제적 대응하며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OIN(Open Invention Network) 2.0’에 가입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OIN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아마존, 구글, 도요타 등 세계 주요 IT·자동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OIN 1.0에 가입한 현대차·기아는 특허 보호 범위가 확대된 OIN 2.0에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도 특허 분쟁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우려를 줄여준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가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n@

## 중진공·LG엔솔, K-배터리 유망기업 발굴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한다.

중진공은 LG엔솔과 ▲공정불량 검출 기술 ▲배터리 상태 실시간 진단 예측 시스템 ▲차세대 공정·설비 기술 ▲배터리 셀 저항 감소 기술 4개 분야에 걸쳐 ‘K-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OS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협력 관계를 넘어 역량 있는 비협력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솔루션을 연결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LG엔솔과의 공동 기술 검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지원 투자 협의 등 후속 협력이 검토될 예정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및 민간의 지역선도기업 대출 등을 연계해 선정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이다.

/김승호 기자

## 한진, 中 海외판로 물류 지원

역직구 수출 경쟁력 제고

한진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든든한 물류 지원군으로 나선다.

한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2026년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은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이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로,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 등을 통해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현지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한진은 그동안 축적한 글로벌 물류 노하우와 전 세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별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한진은 이번 사업에 국내 물류사 중 최대 규모의 통관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와 지난 2025년 12월 새롭게 개소한 ‘유럽 풀필먼트 센터’를 전격 투입한다.

/김승호 기자